

나주 마을공동급식 효자노릇 '톡톡'

나주시가 농촌사회 활력제고와 농번기 농업인의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위해 추진한 올해 마을공동급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마을공동급식사업에 4억원을 투입, 242개 마을을 대상으로 급식 재료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했다.

지난 2007년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마을공동급식사업은 15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경감, 주민 간 친목도모, 정보교류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대표적 정책으로 꼽힌다. 전남도 시책 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범 사례로 꼽히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공동급식뿐 아니라 '꾸러미 급식 및 반찬배달사업'을 추가로 지원했다.

꾸러미 급식은 로컬푸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5개 마을을 선정해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꾸러미 형태로 배달한다. 공동급식이 어려운 마을에 추진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들의 영양 균형, 일손부족 해소 등에



나주시는 올해 하반기 마을공동급식사업에 4억원을 투입, 242개 마을에 급식 재료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했다. /나주시 제공

하반기 242개 마을 급식 재료비 등 지원

반찬배달 시범사업 병행...농촌 활력 제고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반찬을 배달받은 마을 주민들은 "바쁜 수확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었는데

맛있는 반찬을 배달해준 덕분에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만족해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에도 마을공동급식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에 힘써겠다"며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흥 산단로 중앙분리대 황금사철나무 식재 눈길

황금빛 경관 가로수로 조성된 장흥 산단로 중앙분리대가 호평을 받고 있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장흥 산단로 중앙분리대 경관 가로수 조성 사업을 진행해 4차선 2km 구간에 황금사철나무를 심었다. <사진>

황금사철나무 중앙분리대는 아름다운 가로수를 통해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생태관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도심 생활권의 녹지공간을 위해 조성됐다.

식재한 지 1년이 지난 황금사철나무가 최근 중앙분리대를 빼곡히 채우며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황금빛 가로수가 중앙분리대 역할과 경관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벤치마킹을 위해 장흥군을 찾은 경기도 부천시 방문단도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방문단은 황금사철나무 중앙분리대를 통해 조성된 경관 가로수에 호평



을 보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 명품가로수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녹색관광자원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성 친환경 농업기반 강화

농식품부 공모선정...삼계면 일대 생태보존

장성군이 친환경 농업단지인 삼계면 생촌·죽림리 일대를 대상으로 '농업환경·생태 보존사업'을 추진한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0년부터 5년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인 삼계면 생촌·죽림리는 장성·담양·함평·영광군 등 전남 서부권 4개 지자체의 상수원인 평림댐 상류지역으로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다.

생촌리는 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매년 평균 1억3,000만원의 사업 관리비와 운영비, 활동 이행비를 지원받게 된다.

활동 이행비는 토양 양분관리, 농업용

수 수질개선, 하천·저수지 정화활동, 마을경관 조성, 생활폐기물 수거·분리배출 등에 사용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체계적인 농업환경 관리를 통해 생태계가 크게 개선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주민 스스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환경·생태 보존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농촌의 경관을 직접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기능의 정부 사업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성군의회 신청사 짓는다

93억 투입 내년 10월 착공 업무공간 부족난 해결 기대

장성군청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회가 신청사를 건립한다.

장성군은 4일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848㎡ 규모의 군의회 신청사가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의회 신청사 건립은 지난 3월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현재 토지 매입과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사 장소는 현 위치에서 직선으로 약 50m 떨어진 장성읍 영천리 주택가다.

내년 6월까지 토지 매입을 마치고 실시계획을 거쳐 10월 착공하며 총 사업비는 93억원이다.

민원봉사과는 의회 새청사에 자리잡는다.

1992년 지어진 장성군청은 지방자치단체 기준 면적의 약 80% 수준이다. 업무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직원 휴게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의회가 이전하더라도 기존 면적 대비 880㎡가량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청뿐만 아니라 의회도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의회 청사 연면적은 852㎡로 법적 기준 면적의 약 56%에 불과하다.

전남 17개 군 가운데 별관 형태로 군청과 분리된 청사를 가진 의회는 현재 12곳이다.

장성군은 내년 신청사 준공이 끝나면 해남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규모의 의회 청사를 갖고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함평 자연생태·양서파충류공원 임시휴원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동물 휴식 등 재정비

함평군은 4일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동절기를 맞아 임시 휴원한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이다.

지난 9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은 이번 휴원기간에 맞춰 수도시설 보수작업을 비롯한 월동준비에 들어간다. 또 각종 시설물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내년 3월 다시 개장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일원에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은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등 7개의 전시시설과 반달가슴곰 관찰원 등 16개의 관람시설, 전망대, 벽천폭포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지난 2014년 함평군 신광면 학동로 일원에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8만5,000㎡의 부지에 연면적 2,673㎡ 규모의 별관까지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서파충류 전문 생태공원이다.

현재 국내외 70여종, 190여 마리의 양서파충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뱀 감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화순여협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화순군여성지도자협의회는 최근 하니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19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을 추진했다.

김장김치 담그기에는 새마을부녀회, 고향생각주부모임, 여성이용소방대, 한국생활개선연합회, 한국부인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여성자원봉사협의회, 21세기여성발전협의회 등 사회단

체 회원 300여명이 참여했다. 김장김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독거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조손가정, 취약계층 등 1,086가구에 전달됐다.

양경자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회원들의 마음과 정성이 어려움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서호영 기자



장성 자원봉사자대회 성료

장성군은 최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장성군 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과 2019년 활동영상 보고, 개인표창(15명)과 우수 자원봉사단체(3개 단체) 시상 등이 진행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열로우시티 장성'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담양 대덕면 주민총회 개최

담양군 대덕면은 2020년 핵심 지역 발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총회에는 김정오 군의장과 최영호 군의원,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덕면은 주민총회 이전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지역 현안과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을 도출했으며 이장단과 사회단체지

도자, 주민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주민총회에 상정할 최종 의제 8개를 결정했다.

총회에서 상정한 최종의제 8건 중 주민투표 결과 ▲둘레길 및 등산로 조성·정비 ▲대덕면 전체 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인 마린 ▲귀농·귀촌인 유대강화를 위한 대덕자치회관 제정이 선정됐다.

/담양=장동원 기자